

“인도 4대성지 한국사찰 재정난-포교위축 심각”

주지스님 4명 귀국 한자리 모여

“국내 불교계가 인도 성지에 세워진 한국 사찰들을 의뢰하고 있어, 세계 불자들의 성지인 이곳에서 한국불교는 여전히 낯선 이방인에 불과하다.”

인도내 부처님 4대 성지에서 수 년째 사찰을 운영해 온 4명의 주지 스님들이 일시 귀국, 1일 충남 당진 니르바나사에서 모여 ‘인도 성지 주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월우(고려사·보덕가야), 동용(북아원·바라나시), 성관(대한사·구시나가라), 대인(금강정사·스라바스티) 스님들은 한결같이 “중단을 비롯한 국내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 불교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수행과 문화를 현지에 알리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지만, 현재 인도 소재 한국 사찰 대부분이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 한국불교를 알린다는 본래 취지조차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 정부는 매

년 4대 성지 소재 외국 사찰을 방문, ‘성역화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한국 사찰은 이러한 요청에 전혀 응하지 못하고 있다. 4대 성지에는 각각 5~15개의 외국 사찰이 있는데, 한국 사찰과 같은 경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것.

현지인을 상대로 한 한국불교의 포교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 녹아원 주지 동용스님은 “현지 사람들에게 한국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나 복지처럼 사회활동을 토대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와는 달리 인도 성지 소재 한국 사찰의 대부분이 ‘정기적’인 보시보다는 한국인 순례자 1명



○충남 당진 니르바나사에서 ‘인도성지 한국사찰’의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는 주지스님들. 사진 왼쪽부터 월우·대인·성관·동용스님.

당 2~3달밖에 불과한 ‘일시적’인 보시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난에서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사찰 유지에도 버거운 탓에 한국 불교를 알리는 사회 활동을 벌일 여력도 없고, 그래서 인도에 있으면서도 인도와의 관계는 ‘남’과 같은 모습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주지들의 한결같은 자탄. 스님들은 “한국 불교계의 지원과 이를 토대로 인도 현지인 포교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국 사찰이 인도 성지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의 경우 해외 포교에 매년 6백여 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으나, 영문 소식지 발간 및 배포 정도에 사용될 뿐. 스님들은 “인도 성지 한국 사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세우지 않는다면 대부분 고사할 게 확실시 된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부처님의 4대 성지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2백여 년이 지난 지금, 인도성지는 일본·미국·스리랑카·호주·독일 등 세계 각국 불교인들의 순례지이자 자국의 불교와 문화를 알리는 포교의 장이 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통일빌딩 6층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달라이라마 11월16일 방한예정

준비위 6일 개소식...강연등 6박7일 일정 확정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11월16일 방한한다. 이에 따라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통일빌딩 6층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달라이 라마 방한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개소식에서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는 “19일 오후6시 종로 연강홀에서 준비위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9일 열리는 발족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강원목목사의 격려사, 여야 3당 대표 및 고은 시인의 축사, 법장 상임대표와 자를린포체의 인사말, 해암 조계종 중정의 영상 축하메시지, 달라이 라마의 답례 메시지, 경과보고 및 방한프로그램 발표, 달라이 라마 방한을 축하하는 ‘평화인 선언’, 로탄 남림의 티베트음악 특별공연, 국내 실내악 및 성악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방한준비위는 또 오는 11월 16~22일 6박7일간의 달라이 라마 방한 일정은 세 차례의 대중강연회와 두 차례의 학술강연회, 해암 조계종 중정의 티베트대장경 중장식 및 동국대 명예박사학위수여식과 ‘평화와 관용’ 주제 서울대 학술심포지움이 예정되어 있다. 김재경 기자

대중강연회는 서울(방한준비위원장), 광주(광주·전남지역 4개 교구본사와 광주KCRP), 부산(부산 불교연합회)에서 열리며, 학술강연회는 티베트대장경 중장식 및 동국대 명예박사학위수여식과 ‘평화와 관용’ 주제 서울대 학술심포지움이 예정되어 있다. 김재경 기자

한국불교 영문소개서 발간

조계종 포교원, 아שמ 등 국제행사때 보급

외국인들이 한국불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영문판 종합포교책자 《What is Korean Buddhism?》이 8일 발간됐다. 이번에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발간한 한국불교 영문책자는 가을 아שמ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외국사절 및 관광

객들에게 한국불교를 폭넓게 알리는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6장 224쪽으로 구성된 이 영문 소개서에는 1장 한국불교의 역사, 2장 한국불교의 특징, 3장 스님의 수도생활, 4장 사찰을 찾아서, 5장 조계종의 주요사찰, 6장 성전의 가르침이 울려 퍼져 제작됐다. 이 책자는 1차로 해외 각국의 사찰과 주한외국대사관 및 문화원, 공공기관 관련부처, 전국주요도서관, 관광포사할등을 중심으로 배포된다. 김원우 기자

이 같은 이총리의 공식발언은 “국·공립학교의 단군상 건립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라는 김원우의원(한나라당)이 질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김의원의 질의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국·공립학교 및 공공시설에 단군상을 설립 입장, 단군을 국조로 인정하는지 여부, 단군영정 공인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원우 기자

“학교 단군상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이한동총리 공식표명

이한동 국무총리가 “국·공립학교 단군상 건립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단군상 건립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이 확인됐다. 이한동 총리는 “단군을 우리민족의 시조로 인정하고 있다”며 “국·공립학교에서 교육자료로 단군상을 건립한 것인 만큼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계종 18일 임시총회

총헌개정안 안다를듯

조계종 총무원과위원회(위원장 영담)는 6일 의정단-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열리는 147회 임시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정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총무원보고 △각 상임분과위원회 보고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보고 △조계사신협 사건 △총정장사 특위 구성 △2544년 중앙총무기관 추가경정예산 승인 △각종 결의문(지리산법 건설 및 각화사 인근 개발 반대 등) 채택 △기타 안건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총무원은 추경예산안 10억 여원을 편성해 중앙총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총회 재정분과위원회는 17일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앞서 총헌 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총헌특위, 위원장 정후)는 4일 총회사무처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임시총회에 총헌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실시한 ‘총헌 개정 및 사면 실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정성문 기자

(swjung@buddhania.com)

“학인포함 대책위 구성

김포학사 문제 해결”

정대스님, 승가대이사회서

중앙승가대는 지난 6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54차 이사회를 열고 부실공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포학사 문제를 중앙승가대 학인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정대스님은 “총회가 끝나는 이달 하순경 김포학사 입주 문제 등과 관련해 중앙승가대 학생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총무부장, 교육부장, 중앙승가대 총장,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등 6인을 당연직 이사로 하는 내용을 승가학인 운영내규에 명시하기로 결의했다. 한영우 기자

1면 ‘복지시절’서 계속

하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 관계자들끼리 연합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정서에 민첩하게 기능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가톨릭의 경우 각 교구별로 사회복지회를 두고 여기에 등록한 시설이 많아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단 지도부 스님들의 안일한 복지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복지시절을 소유하고 있는 총회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데다, 이들 스님이 이유없이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요원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94년 9월 공포된 종헌중 법 제21장 제117조와 118조에는 불교사회복지원을 두고 각종 기관과

단체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에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호걸 과장은 “현대의 복지가 도와주는 것에서 도움이 필요없도록 만들어주는 예방개념을 도입하고 있듯이 교계 복지시설들에 대한 관리도 사고가 터지고 난 후 수습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그런 의미에서 법제도 마련을 위한 스님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조석영 부장은 “법제도와 체계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조건 등록을 강요하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며 “종사자 교육과 정보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부 분 예산지원 등이 함께 이뤄진다면 복지시설들이 이 제도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nia.com)

예비스님 222명 탄생

조계종 19기 행자교육원

2백22명의 예비승려가 탄생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7일 지지사 만덕전에서 19기 행자교육원 회향식을 갖고 예비승려 2백22명(사미 1백13, 사미니 1백9)을 배출했다.

일면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출가란 기존의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진실한 수행자적 품도를 지키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료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세생생 부처님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남부럽지 않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옵니다”라고 부처님전에 간절히 서원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함께 노력하면...

갈월시 영탑(靈搭)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시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총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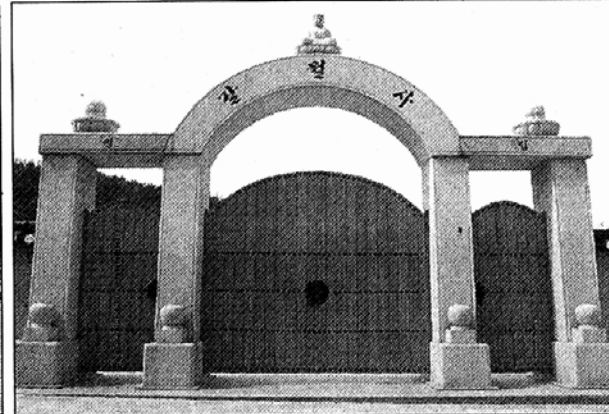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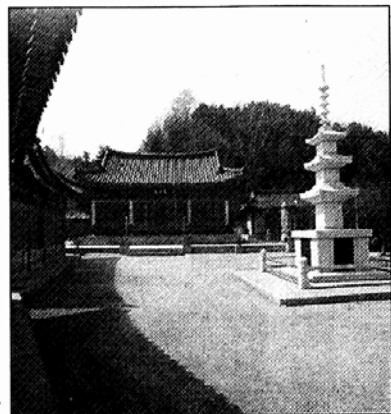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참다운 호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장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들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들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맑은 영구허가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문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문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보고 싶은곳 · 영원한 심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영속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